

가교 架橋 Bri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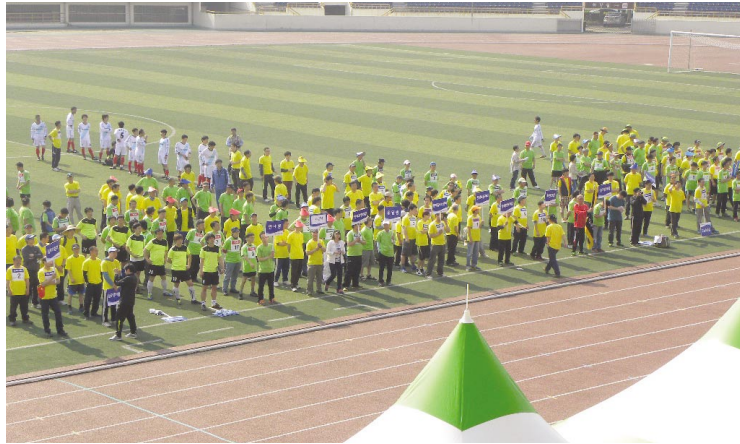
www.dropin.or.kr

2014.5
Vol.7



Contents

서울특별시립 브릿지종합센터 소식지 | 가교(架橋) Bridge | 2014. 5 Vol. 7



- 03** 인사말
- 04** 브릿지센터 들여다보기
- 09** 2013~2014년 거리 노숙 생활실태 및 욕구 설문 조사 결과
- 15** 숫자로 보는 2013년 브릿지종합지원센터
- 15** 노숙인 자립을 위한 '희망식당' 소개
- 16** 센터업무 주요 추진사항
- 17** 인턴 직원 인사의 글
- 18** 브릿지종합지원센터 2013년 실적보고
- 19** 따뜻한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 19** 콩으로 후원해 주세요
- 20** 후원안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우리 혹은 타인의 삶에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지
아무도 모른다
헬렌 켈러



발행처 서울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주소 120-030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합동 13번지)
전화 02)363-9199, 9195 팩스 02)363-9198 발행인 이호영 편집인 강남영
발행일 2014년 3월 디자인·제작 에디아

더욱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관장 이호영

2014년 갑오년이 힘차게 시작인지 벌써 세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말은 생동감의 상징이자 활력을 뜻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청마의 해라고 하는 올해는 더욱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한 해가 될 것을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4년 갑오년은 1894년 이후 두번째로 다시 돌아온 갑오년입니다. 1894년 갑오년은 동학농민 운동을 시작으로 우리나라가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인 해입니다. 2014년에도 저희 브릿지 종합지원센터의 더 큰 변화와 성장을 기대해 봅니다.

브릿지 종합지원센터에서는 2014년에는 “더 새롭게, 더 다르게”라는 기치로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루하루 쌓여가는 일상 속에서 늘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민감성을 놓치지 않고 노숙인 문제에 예민하고 기민하게 반응하여 노숙인 보호 최일선에 앞장서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갖도록 하는 것이 올해 저희 기관의 미션입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우리 이웃들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사랑으로 늘 갚을 수 없을 만큼의 큰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봐주시는 후원자 여러분과 관계 기관의 모든 분들께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늘 보내주시는 꾸준한 시선에 감사드리며 많은 것들을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립 브릿지 종합지원센터장

이 호 영 배상



브릿지센터 들여다보기 (2013년 4월 ~ 2014년 3월)

5월 2013

노숙인 명량 운동회

서울시에서 노숙인들의 자활의지를 키우고 건강회복을 돕기 위하여 9일(목) 목동종합운동장에서 노숙인 시설 30개 시설 97개팀 1016명의 선수 등 2,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2013년 노숙인 자활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축구와 단체줄넘기, 줄다리기, 달리기, 제기차기 등 모든 종목에 참가하여 동료들과 함께 땀을 흘리고 부대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노숙인 시설 금연구역 지정 및 교육

흡연에 대한 폐해와 금연법 및 관할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연계하고 안내하기 위해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센터 내 3층 프로그램실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센터 내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지정에 대한 사항 공지와 함께 외부 공공시설 및 센터 주변 영업점 등에서 흡연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6월

취업센터 유관 기관 실무자 간담회

6월 4일 노숙인 취업을 위한 정보 교류와 구직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노숙인 센터 및 유관 기관의 담당자들이 브릿지 종합지원센터 내 프로그램실에서 모여 실무자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시설별 구직자 연령 및 선호 일자리를 파악하고, 취업 진행 방법과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여 각 기관에 맞는 채용 정보 탐색을 가능하게 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노숙인 위기관리 사업 중간평가

6월 7일 센터 내 프로그램실에서 노숙인 위기관리사업 중간평가 사례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나병우팀장, 이수미주무관, 서정화 회장, 노정균, 정운진 전문의, 브릿지 종합지원센터와 다시서기센터 실무자들이 그동안의 사업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여 정신보건과의 역할에 대하여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구세군 연희교회 자선봉사단 방문

6월 25일, 구세군의 연희 교회 자선 봉사단 여러분께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시설을 방문한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일회용품 물건들을 후원해주시고자 후원금을 전달하여 주셨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관심으로 꾸준히 도와주시는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구세군 세계선교회 청년 봉사자 방문

구세군은 약 80여개국의 나라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국제적 규모의 그리스도교 교파 및 자선단체입니다. 그 중 각국의 젊은 청년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는 세계 선교회의 청년 봉사자들이 이른 시간 저희 기관을 방문하여 아침 급식을 도와주셨습니다. 각자 다른 모습이라도 어려운 이들을 도우려는 마음들은 같은 모습 같은 색상일 듯 합니다.

7월

금융감독원 무료급식(7월 23일)

더운 여름, 체력이 부쩍 떨어지는 거리 노숙인들을 위해서 금융감독원에서 삼계탕과 시원한 수박과 함께 우리 센터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여름 더위를 시원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무엇보다도 돕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과 관심인 듯 합니다.



8월



KB 금융지주 쌀 후원

매일 같이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센터의 무료급식을 위하여 KB금융지주에서 쌀을 후원하여 주셨습니다. 양질의 쌀을 후원하여 주셔서 늘 정해진 식사 인원 이상으로 오시는 이용자 분들께서 따뜻한 밥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들레특강 졸업식

유명 문학작가의 강의를 통해서 작가의 노하우를 전달받고 상상력과 문학적 감수성을 키우는 민들레특강이 8월 9일 졸업식을 맞이하였습니다. 조정인 시인의 강의 내내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여 서투른 글쓰기로 본인들의 마음을 표현했던 모든 이용자들에게 더없이 뜻깊은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구세군 아태사관대학 교육생 방문

구세군의 사관지도자 훈련 과정인 아태사관대학(SPEACO 2013)이 한국에서 22년만에 개최되면서 교육생 여러분께서 저희 센터에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구세군에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노숙인 사업이 한국에서 시행되는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과 책임에 대한 설명을 듣고 깊은 관심을 보이는 모습들에서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한가지로 충분히 통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구세군 질리안 다운너 아태부장 방문 및 무료급식 봉사

22년만에 한국에서 개최된 아태사관대학과 관련되어 방문하신 질리안 다운너 아태부장님께서 우리 센터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아침 일찍 시행되는 무료 급식에 참여하셔서 이용자들에게 식사를 나누어 드리고 배식 봉사 이후에는 기관을 두루 살펴보시며 관심있게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들으시고 우리 센터를 방문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9월



추석 명절 행사

올 가을에도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에 가지 못하는 거리 노숙인을 위하여 차례상과 함께 선물과 식사를 마련하였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 굶주림에 고통받지 않으실 수 있도록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센터를 계속 개방하여 식사를 준비하였고 동료들과 함께 어울려 장기와 옷놀이 등 우리 민족 고유의 놀이도 함께 즐기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노숙인시설 운영평가

서울시에서 노숙인 보호시설의 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평가는 노숙인 보호를 위한 단초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더욱 많은 노숙인들이 바로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기 위한 최선의 우수한 시설로서의 경쟁력 갖추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 기관에서도 성심껏 시설위원들의 질문과 평가에 임하였습니다. 노숙인 보호를 위하여 늘 최선을 다하는 브릿지 종합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월

KT&G 햅쌀나눔행사

10월 2일 KT&G의 햅쌀 나눔 행사가 남산 한옥마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박수홍씨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서 KT&G 복지재단이 저소득 층 어려운 가정에 햅쌀을 전달하는 의미있는 행사에 저희 기관도 초청받아 햅쌀을 배분받게 되었습니다. 좋은 의미의 좋은 쌀이 행복의 기운으로 모두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 4분기 급식납품업체 선정 심사

10월 2일 기존 급식납품업체인 에버랜드와의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2014년 4분기 급식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가 브릿지 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경쟁한 업체들의 성의어린 PT 발표 이후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4분기 납품업체로 에코푸드가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용자들의 따뜻한 식사를 위하여 더욱 힘쓰는 브릿지 종합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월

하나 sk카드 미리크리스마스 나눔 행사

11월 1일 조금 이른 산타들이 저희 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하나SK카드 창립4주년을 기념하여 특식을 준비하여 500여명의 센터 이용자들에게 직원 약 15명이 따뜻한 식사와 양말 선물을 나눠주러 오셨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땀을 뻘뻘 흘리며 국과 반찬, 국을 한가득 담아 주시는 봉사자도, 다리도 피지 못하고 많은 급식판을 깨끗이 닦는 설거지 담당자도, 모두 아름다운 산타의 모습이었습니다.

2013년 동절기 노숙인 보호를 위한 발대식

11월 21일 오후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2013년도 동절기 노숙인 응급보호를 위한 발대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저희 브릿지 종합지원센터 전 직원도 발대식에 참석하여 동절기 노숙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노라 다짐하였습니다.



12월

금융감독원 무료급식

지난 일년간 정기적으로 진행되었던 금융감독원 무료급식 봉사가 2013년 마지막으로 12월 12일 진행되었습니다. 늘 옷은 낡아서 오셔서 배식 봉사 뿐만이 아니라 설거지에 뒷정리까지 항상 도와주시는 금융감독원 봉사팀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월

2014

김필수 서기장관 방문 및 영성프로그램 인도

구세군 대한본영의 재단상임이사인 김필수 서기장관님께서 센터를 방문하셨습니다. 본인의 어려웠던 과거 시절과,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신 경험담을 함께 이야기하시며 현재 우리 시설에서 생활하고 계신 이용자들에게 희망을 전파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행정 제2부시장 방문

겨울철 거리 노숙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염려한 서울시 행정 제2부시장인 김병하님이 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보호 체계에 대하여 관심있게 설명 들으시고 센터 곳곳을 살펴보시며 거리 노숙인을 위하여 사용해 달라는 금일봉도 함께 전달 하시고 가셨습니다.

서울시 노숙인시설 식자재업체 전자입찰 공동계약

서울시에 있는 소규모 노숙인 시설이 공동으로 식자재업체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2차에 걸친 업체 선정 결과 예코푸드 코리아, 삼성웰스토리, cj프레시웨이 3개 업체와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숙인들을 위한 급식이 보다 양질의 내용으로 제공될 수 있는 노력을 늦추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설 명절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설이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이는 명절 인지와, 보고싶은 가족을 찾아가지 못하는 우리 센터의 이용자분들은 더욱 외로울 수 밖에 없습니다. 가능한 소외감을 줄이고자 센터에서 함께 모여 공동차례상을 준비하여 차례도 지내고 식사와 선물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언젠가의 명절에는 모든 분들께서 가족과 함께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월

터누아 쌀 나눔행사

(주)터누아코리아에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시작한 비전 선포식에서 이재원 전무가 꽃 화환 대신 받은 드림미쌀 화환 610KG을 기증하여 주셨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쌀은 무료급식을 통해 거리 노숙인의 따뜻한 식사로 제공됨으로서 그 사랑이 전달되었습니다.



3월



미국 대사관 직원 방문

미국 대사관의 직원분들께서 거리 노숙인을 보호하는 저희 기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방문을 하였습니다. 기관이 설립된 취지와 이용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자세하게 들으시고는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경청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설 안전점검

3월 17일 서대문구청에서 해빙기 각종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 하러 저희 센터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꼼꼼하게 모든 시설의 구성구석을 살펴보고 설명을 들으시며 점검을 하여주시는 관계자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벽화봉사단 봉사활동

신한생명 서울지역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서울시 벽화봉사단에서 저희 기관의 벽을 예쁘게 그려주시며 토요일 한나절 내내 땀을 흘리셨습니다. 희망캐버스벽화전문단의 약 60여분의 봉사단원들이 양쪽 벽에 매달려 꼬박 힘써주신 덕분에 저희 브릿지센터의 울퉁불퉁한 벽이 매끄럽고 화사하게 변모하였습니다.

세스코 에어제닉 설치

하루에 약 500여분의 이용자분들이 방문하여 주시는 저희 기관에서는 여러 분들께서 드나드시기 때문에 구취나 악취는 어쩔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분들과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 방역을 맡아서 해 주고 있는 세스코의 에어제닉 방향제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용자분들이 자주 이용하시는 화장실과 침실, 프로그램실과 휴게실에서 악취 대신 향기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개최

3월 28일 본 기관의 제 1차 정기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각 운영위원들을 모시고 2013년 사업 보고, 후원금 보고와 2014년 사업 계획 및 예산 심의에 대해서 논의하고 2014년도 법인 이사 변경에 따른 선임 이사를 위촉하기로 하였습니다.

브릿지 종합지원센터 운영매뉴얼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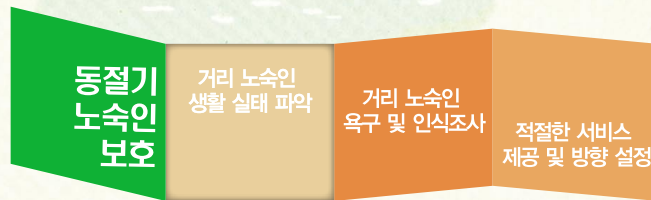
저희 센터에서는 그동안 진행한 사업을 토대로 노숙인 복지에서 일하는 실무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2014년 브릿지 종합지원센터 업무 매뉴얼]을 발간하였습니다. 지난 12년간의 센터 운영을 통하여 축적된 정보를 나누고자 발간한 업무 매뉴얼이 보다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3~2014년 거리노숙생활실태 및 욕구 설문 조사 결과

1. 조사목적

거리 노숙인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욕구 및 인식 조사를 통해 동절기를 맞이하여 적절한 서비스 제공방향을 설정하여 동절기 노숙인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2. 조사개요

조사지역	조사기간	조사방법	조사인원(명)	응답률(%)
야간 아웃리치 활동 지역	2013. 12. 02. ~ 12.10	설문지	100	100

3. 조사내용 및 결과

을지로, 시청, 종각 등 야간 아웃리치 활동 지역에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인원 100명 가운데 92명이 남성 노숙인으로 응답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표-1 성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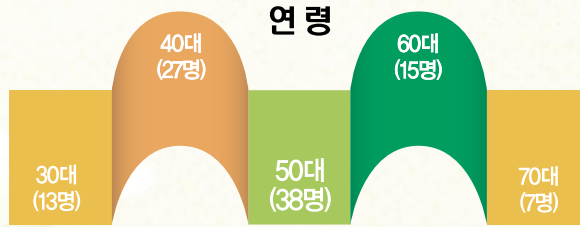
남성	여성
92	8

응답 연령은 〈표-2〉에 결과처럼 100명 중 50대가 38명, 40대가 27명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60대가 15명, 30대가 13명, 70대 이상이 7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2 연령〉

〈단위 : 명〉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13	27	38	15	7



40~50대는 일반적으로 취업을 한 후 안정적인 근로활동을 유지하다 실직, 사업실패, 가족해체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 지지기반을 상실한 거리 노숙인들로서(표-2)에서 보듯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이렇게 장년층의 사회적 실패와 불안정한 근로형태는 경제적 수입의 불안정을 야기하여 거리생활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3 노숙기간〉

(단위 : 명)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49	35	10	2	4

노숙을 시작한 기간은 5년미만에서 10년만이라고 답한 노숙인이 100명 중 84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수치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교적 노숙기간이 짧은 노숙인이 상당 수 라고 보는 시각 보다 노숙의 형태가 불안정한 소득으로 인해 지속적인 거리 생활에 기인하여 주거지 역시 안정적이지 못하여 거리 생활과 불안정한 주거지에서 번갈아 가며 생활하는 노숙인이 대다수 포함된 것으로 여겨진다.

〈표-4 현 노숙 장소〉

(단위 : 명 (%))

을지로 입구	종로	시청, 시의회	종각	기타
41(37)	6(5)	19(17)	19(17)	25(23)

표-4에서 보듯이 현재 주된 노숙장소로는 을지로 입구 41명, 종각·시청·시의회 각각 19명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상담 및 급식 등 서비스 제공이 한 곳으로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고 앞으로의 서비스 방향 설정에서도 적극적 반영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5 동절기 잠자리 해결 장소 장소〉

〈단위 : 명 (%)〉

현 노숙 장소	일시보호시설	자활쉼터	응급 구호방	기타
67(67)	5(5)	5(5)	18(18)	5(5)

잠자리 해결 장소를 묻는 질문에 동절기 잠자리 해결장소로는 〈표-5〉와 같이 현 노숙장소를 유지하겠다고 답한 노숙인은 무려 67명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일시보호 시설과 자활쉼터는 각각 5명으로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응급구호방을 택한 노숙인은 18명으로 적지 않은 수로 나왔는데 동절기에 한해 응급구호방이 운영되는 점을 볼 때 동절기 이후 노숙인들에게 실질적이고 희망적인 자립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거시적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6 고정적인 근로활동〉

〈단위 : 명 (%)〉

하고 있다	하고 있지 않다
7(7)	93(93)

일상생활이 어려워 삶의 터전을 떠났던 노숙인들에게 다시 예전의 생활감을 갖고 가능한 한 사회적 기능을 고려하여 자립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은 거주환경을 만들고 유지 할 수 있게 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주거 유지를 위해서는 고정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근로활동이 필요한데 〈표-6〉와 같이 현재 고정적인 근로활동을 하고 있다 라고 답한 응답자는 단 7명에 불과했다.

또 〈표-7〉에도 나타났듯이 겨울철 거리 생활을 위한 준비가 없다 라고 답한 응답자가 62명으로 대다수였고 아직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답한 노숙인도 18명이나 되어 총 100명 중 80명이 겨울철 주거지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표-7 겨울철 거리생활을 위한 대책〉

〈단위 : 명 (%)〉

있다	없다	생각해보지 않았다
20(20)	62(62)	18(18)

현재 거리 노숙을 유지하는 이유로는 거리생활에 대한 불편함이 없다고 답한 인원이 34명,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서 20명, 건강상태의 이유 17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8 동절기 잠자리 해결 장소 장소〉

〈단위 : 명 (%)〉

고정수입 없음	건강상태	근로의지 없음	불편함이 없음	기타
20(20)	17(17)	13(13)	34(34)	16(16)

주목할 것은 생활에 불편함이 없다고 답한 인원이 34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이런점은 정상적인 근로 활동을 현저하게 떨어트리는 계기가 되어 근본적인 노숙생활 탈피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거리 노숙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주거 지원보다는 고정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근로활동이 중요하다. 불안정한 근로와 주거지는 노숙인의 건강과 자립을 위협한다. 겨울철 대비 거리 노숙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숙인의 지속적 근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9 서울시 지원정책 인식 여부〉

〈단위 : 명 (%)〉

서울시 일자리	특별자활 사업	임시주거 지원	응급 구호방	종합센터 쉼터	없다	기타	무응답
13(9)	31(22)	16(11)	20(14)	43(30)	15(11)	2(1)	1(1)8

거리 노숙 탈피를 위해 시행 중인 서울시 지원정책 중 알고 있는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의 정책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종합지원센터(43명)와 특별자활사업(31명)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0 이용 경험 여부〉

〈단위 : 명 (%)〉

있다	없다
46(46)	54(54)



〈표-11 이용 경험 서비스〉

〈단위 : 명 (%)〉

서울시 일자리	특별자활 사업	임시주거 지원	응급 구호방	종합센터 / 쉼터
4(8)	17(37)	5(11)	5(11)	15(32)

서울시 지원 정책을 대부분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이용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이용해 본적이 있다 라고 답한 노숙인이 100명 중 46명으로 절반에 못 미치는 결과로 나타나 시행되는 정책에 비해 실제이용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 경험이 있는 정책은 46명 중 특별자활사업이 17명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종합지원센터/쉼터 15명, 응급구호방이 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임시주거지원사업은 가장 많은 노숙인이 알고 있음에도 불과하고 실제 이용 경험으로는 낮은 수치를 드러냈다.

지원 정책 중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표-12〉와 같이 도움이 되는 정책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48명으로 절반이 약간 안 되는 수치로 나타났다. 또 어떤 정책이 도움이 됐는지 묻는 추가 질문에는 종합지원센터/쉼터 18명, 특별자활사업이 15명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응급구호방 8명, 서울시일자리 4명, 임시주거지원 3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12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

〈단위 : 명 (%)〉

있다		없다		
48(48)		52(52)		
서울시 일자리	특별자활 사업	임시주거 지원	응급 구호방	종합센터 / 쉼터
4(8)	15(31)	3(6)	8(17)	18(38)

표-12에서 보듯이 장기간 이용이 가능한 종합지원센터나 쉼터는 이용경험이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는데 특별자활사업이나 임시주거지원사업을 포함하여 대다수의 정책이나 서비스가 종합지원센터나 쉼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실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이 없다고 답한 노숙인은 대부분의 지원 정책이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이용할 수 있는 시간 및 서비스가지수가 적다고 느껴 유지해 오던 노숙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생활 패턴을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13 노숙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단위 : 명 (%)〉

주거지원	취업 알선	신용 회복	의료 지원	없다	기타
37(36)	20(19)	0(0)	3(3)	36(35)	7(7)

현재 노숙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주거 지원 37명, 없다고 답한 의견이 36명으로 대등하게 조사됐고 그 뒤론 취업알선 20명, 기타 7명, 의료지원 3명으로 나타났다. 노숙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주거지원과 취업알선이 중요한 요소로 꼽혔는데 안정적 일자리는 수입의 안정성을 보장 할 수 있고 주거유지 또한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인식이 큰 반면 노숙을 탈피하기 위한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답한 대부분은 임시주거지원 사업은 개인이 주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힘들고 일정한 기간에만 주거지원을 한 뒤 지원을 종료하는 방식이기에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기도 했다.

〈표-14 주거 지원 시 희망 유형〉

〈단위 : 명 (%)〉

쪽방	고시원	여관, 여인숙	상관 없음	기타
2(2)	11(11)	5(5)	58(58)	24(24)

주거 지원 시 희망하는 주거 형태로는 상관없음(58명)이 절반 이상이었고 기타(24명), 고시원(11명)이 그 뒤를 이었다. 고시원이 다른 주거형태보다 선호도에서 앞선 수치로 나타났지만 주거 지원 시 희망하는 주거형태로 상관없음을 답한 노숙인도 58명(58%)로 나타나 주거 형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진다.

〈표-15 취업 알선 시 희망 직종〉

〈단위 : 명 (%)〉

공공 일자리	건설 일용직	생산직	경비 / 청소직	상관없음	기타
11(11)	18(17)	5(5)	6(6)	27(26)	35(34)

표-15에서 보듯이 기타 35명, 상관없음이 27명으로 취업 부분 역시 직종 여부는 그다지 크게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숙인 대다수가 비교적 노동 강도가 심하지 않은 공공 일자리와 특별한 기술 없이도 가능한 건설 일용직을 선호 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16 근로활동이 힘든 이유〉

〈단위 : 명 (%)〉

정보 부족	주민등록 말소	건강상태	근로의지부족	기타
9(9)	3(3)	21(21)	39(39)	28(28)

〈표-16〉과 같이 현재 근로활동이 힘든 이유로는 근로의지부족(39명)과 기타(28명)순이었고 건강상태(21명)와 정보부족(9명), 주민등록말소(3명)등이 뒤를 이었다.

근로의지의 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뽑혔지만 노숙 생활의 장기화 및 건강상태 악화로 인해 거리생활이 고착화되어 주거상실로 주민등록까지 말소되는 현실로 이어져 단일적 이유보다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보 부족을 근로활동이 힘든 이유로 뽑은 노숙인도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의 노숙인이 희망하는 직종은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고 일용직등 불안정한 고용형태의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으로 여겨진다.

〈표-17 동절기 참여 히 서비스〉

〈단위 : 명 (%)〉

서울시 일자리	특별자활 사업	임시주거 지원	응급 구호방	종합센터 쉼터	없다	기타
7(7)	17(17)	14(14)	15(15)	3(3)	37(37)	8(8)

마지막으로 동절기를 맞이하여 참여 의사가 있는 지원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앞서 〈표-17〉에서 없다가 37명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특별자활사업17명, 응급구호방15명, 임시주거지원14명 순으로 참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자활사업, 응급구호방, 임시주거지원등에 관심을 보였으나 대체적으로 참여의사가 적은 이유는 현 노숙생활의 문제점과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노숙탈피를 위한 의식의 전환은 대상자들 스스로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따르도록 동기를 부여하여 이를 실행 할 수 있는 목적의식을 갖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4. 결론

앞서 조사한 내용을 비추어 보면 노숙인 대다수가 노숙탈피를 위해 주거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주거에 대한 정보부족, 운영기관의 비체계화된 주거프로그램 및 높은 시설의존도로 인해 주거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숙인에 대한 주거 정책은 여전히 잔여적 성격을 지니며 제한적 서비스로 국한되어 있다. 대부분 기관이 쉼터를 이용한 시설보호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고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취약한 상태이다. 노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주거지 미확보라는 측면에서 거리노숙인의 자립과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선 임시주거 지원사업의 활용이 중요하다.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임시주거비지원사업은 비용효율이 높은 사업이고 보호시설 이용자의 주거안정성에 못지않게 후속주거가 잘 유지되는 편이다. 기존의 노숙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이 아닌 쉼터위주의 정책이었다는 점을 봤을 때 임시주거지원 사업은 노숙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거리 노숙인은 경제적이나 정신적으로 개인의 힘만으로는 극복해 내기 어렵다. 이들의 현재 생활상태를 개선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서는 거리노숙인을 포괄하는 보호체계 및 실천방법과 관련하여 거리숙박의 폐해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보호 및 노숙지역 부근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임시/응급 이용시설 확충, 긍정적 지지망 확보를 위한 아웃리치 강화가 필요하다. 한편 노숙전의 생애실업기간 비중이 거리노숙 만성화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 부분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반실업 상태의 불안정한 직업계층과 빈곤계층에 대한 보다 폭넓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거리노숙인에 대한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거리노숙인으로 하여금 노숙만성화에 이르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노숙 이전에 잠재적 노숙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숫자로 보는 2013년 브릿지 종합지원센터

2013년 한 해 동안 약 **41만 6천**여명의 노숙인들이 저희 센터를 이용해주셨습니다.
거리 노숙인들이 기본적인 생존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으로 저희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중
응급 잠자리 이용은 24,099명, 무료급식 이용은 207,225명
목욕 서비스 이용은 35,202명, 세탁 서비스는 10,756명이 이용하셨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쉼터**로 들어가기를 희망하셨던 분은 **234명**이었으며
새로 신설된 정신보건과의 정신보건요원을 통하여 알코올 및 정신 문제로 **상담**에 응하신 분은
총 **1,504명**으로 **입원 및 주거지원과 쉼터 연계** 등의 조치로 연계된 인원은 **200명**입니다.
새희망고용지원센터의 **직업상담**을 통하여 직업을 찾고자 한 경우는
804건으로 이 중 실지로 **취업**으로 연계되신 분은 **179명**입니다.

한 개인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생활 편의**와
노숙인이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여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노숙인 자립을 위한 **‘희망식당’**의 주인을 모집합니다!

■ ‘희망식당’ 창업 지원 내용

- 창업 교육(점포운영 교육, 조리사 자격 취득지원)
- 점포 창업 지원(보증금 및 시설비 지원)
- 주거 지원(임대주택 입주 지원)

노숙인 자립을 위해 창업에 도움을 주실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노숙인 의료급여에 대하여... 간호사 김충영

노숙인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소외계층으로 이들은 평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질병에 쉽게 노출됩니다. 또한 많은 노숙인 분들이 불규칙한 식습관 등으로 영양부족 및 습관성 알코올 섭취로 인한 간질환 및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거가 불확실하기에 차가운 길거리나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노동 강도가 높은 건설 일용직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근육통, 신경통, 관절통 등으로 인한 질환으로 고생하십니다.

이러한 노숙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숙인 의료급여제도를 도입하고 계속해서 법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숙인 의료 급여가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노숙인의 욕구 파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시 노숙인의 욕구 및 심리조사를 포함해 조사한다면 향후 노숙인 관련 의료 정책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노숙인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숙은 경기침체·주거비 상승·장기실직 등 복합적인 상황에 의해 누구라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노숙인 의료 급여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숙인 의료 급여가 의료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노숙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후 진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4 임시주거 지원 사업에 대하여... 이규만

임시주거 지원 사업 소개

임시주거 지원 사업은 2006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시작되어 오늘날 서울을 비롯한 각 지자체의 예산사업으로 정착되어 시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거리 노숙인에게 초기 주거지 지원을 통하여 노숙생활을 벗어나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편입 및 일자리 연계를 통하여 독립주거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탈노숙을 실현하는데 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주거지원 사업 현황

브릿지 종합지원센터에서는 2014년 주거지원 사업 목표로 90명의 노숙인에게 3~6개월가량의 주거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행하여 대상자들의 재노숙을 방지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30일 현재 35명의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12명의 수급신청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나머지

23명의 대상자에게도 본 기관에 상주하여 운영되고 있는 새희망 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주거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안내,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2명의 대상자가 민간 및 공공일차리에 취업되어 주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초기단계지만 본 센터의 주거지원 대상자 35명 전원이 고시원 및 쪽방에서 주거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로 100%의 주거유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임시주거지원 사업에 있어서 사례관리는 매우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 및 지역 관계망 형성을 위하여 주거 방문 등을 포함한 최소 월 3회 이상의 사례관리를 시행하여 개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서비스 개선을 통해 대상자 스스로가 독립된 주거유지에 성공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이며 노숙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아래 보다 더 효과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인턴 직원 인사말 •

희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조 광 섭

현대의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보건, 의료적, 주택 등의 국민들의 욕구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 서비스체계 또한 욕구에 맞게 다양해졌고 모든 개인들의 사회적, 물질적, 심리적, 가정적, 건강, 청소년 문제, 인권문제, 그리고 여가 생활 문제 등 사회문제 또한 다양화되면서 사회복지사의 영역이 광범위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사회복지 관련 업무분야와 사회복지 기관이나 사회복지 시설과 단체, 서비스 기관들이 늘어나면서 전문적인 사회복지사의 인력과 활동 영역이 다양하게 필요가 되면서 국민들도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중에서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는 흔히들 힘들다고 말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힘든만큼 그 어떤 곳 보다 일을 하며 보람을 느끼고 희망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노숙인복지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접근성이나 노숙인들의 욕구 대응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 등 노숙인들에게 꼭 필요한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사회복지사는 다른 무엇보다 여러 가지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전문적인 지식과 지식을 습득한 전문적인 사회복지사, 둘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가리지 않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가리지 않는 인간 존중 정신을 갖춘 감성적인 사회복지사, 셋째,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와 국가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관점에서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누구나 함께 차이를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봉사정신과 사명의식을 갖춘 사회복지사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정진하는 사회복지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늘 공부하고 많이 배워서 노숙인들이 사회에서 차별 받지 않고 스스로 사회의 일원이라고 느끼며 노숙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전문성과 열성을 모든 갖춘 사회복지사가 되어 희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013년 브릿지센터 실적보고(1월~12월)

● 생활지원과 ●

세부사항		13년 총계	연간목표	달성률
무료 급식	아침	181,893	155,125	117.3%
	점심	24,605	18,460	133.3%
	저녁	727	-	-
	소계	207,225	175,085	118.4%
편의 서비스	응급잠자리제공	24,099	23,815	101.2%
	위생도구지급	120,248	109,530	109.8%
	세탁	10,756	10,950	98.2%
	목욕	35,202	32,120	109.6%
	사물함대여	39,622	27,375	144.7%
	이·미용	1,353	1,400	96.6%
	소계	231,280	205,190	112.7%
의료 서비스	의료실이용	7,916	7,200	109.9%
	외부의뢰/119후송	898	720	124.7%
	상담	412	450	91.6%
	무료진료	718	700	102.6%
소계	9,944	9,070	109.6%	
주간 프로그램	영화상영	1,520	1,525	99.7%
	체육활동	364	367	99.2%
	영성 프로그램 (수요예배)	768	650	118.2%
소계	2,652	2,542	104.3%	
특별자활사업	1,090	-	-	
특별자활주거	1,025	-	-	

● 기획상담과 ●

세부사항		13년 총계	연간목표	달성률	
상담	주간	입소상담	234	9,000	92.8%
		생활상담	1,810		
		취업상담	1,168		
		의료상담	460		
		정신보건 상담	1,006		
		소계	4,678		
	야간	을지로 입구	2,251		
		시청	337		
		시의회	432		
		종각	200		
		기타	461		
소계	3,681				
계	8,359				

● 정신보건과 ●

세부사항		13년 총계	연간목표	달성률
상담	정신	962	1,440	104.4%
	알코올	458		
	일반	84		
소계	1504			
조치	입원	117	200	100%
	주거지원	20		
	쉼터	40		
	기타	23		
소계	200			
조치후 사례 관리	외래진료	109	200	158%
	병원방문	138		
	주거지방문	69		
소계	316			
총소계	1832	1,840	99.5%	

● 행정지원부 ●

세부사항		13년 총계	연간목표	달성률
후원 홍보	후원금	56,973,720	54,000,000	105.5%
	후원물품(건)	133	144	92.36%
	소식지발간	1	1	100%
	사진촬영	415	450	92.22%
	자원 봉사자	229	200	104%
교육 사업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0건	-	-
	인권교육	13건	-	-
	기타(직원교육)	43건	-	-

● 취업센터 ●

세부사항		13년 총계	연간목표	달성률
알코올프로그램		4	4	100%
신용회복 프로그램		4	4	100%
찾아가는 취업상담		4	4	100%
주민등록복원프로그램		10	12	83%
단도박 프로그램		57	60	95%
구직상담(지속상담)		511	337	135%
알선(취업연계)		345	337	102%
취업	상용직	98	70	140%
	정부일자리	20	0	-
	일용직	61	65	93.8%
구인건수		163	154	105%
구인인원수		804	721	111%
사후관리		243	240	101%
소 계		2,324	2,048	113.13%

따뜻한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후원 및 자원봉사 (2013.1~12)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 (2013.1~12)

구분	후원자(차)명
후원금	정기 후원자 권오현, 김기태, 김길태, 김남영, 김병관 김석준, 김영택, 김예덕, 김진관, 김충영, 박지혜, 박진현 박찬관, 신희순, 양연경, 유연모, 이광호, 이성재, 이호선 이재형, 임우식, 장금숙, 전상현, 최성진, 최영민, 황성룡
	일시 후원자 권영화, 김태형, 마상호, 문홍식, 이명희, 이재하, 이창훈 정남용, 조영희, 조원희
단체	정기 후원자 광학건설, 명보에스에이, 미래상엔지니어링삼성에버랜드 에코푸드 코리아, 정보학원, 해피빈
	일시 후원자 구세군 연회교회, 인창고등학교 1학년 1반우리투자증권(주)
물품후원	구세군 대한분영, 구세군 연회교회, 국민은행, 농민신문사 다시서기지원센터, 따스한 채움터, 삼성물산, 상수도사업본부 서대문 푸드뱅크, 서울노숙인시설협회, 온누리복지재단 KT복지재단
자원봉사	응급서비스 자원봉사(급식봉사 외) 권새연, 강민경, 김경용, 김민주, 김석남, 김연주, 김윤희 김준영, 김지선, 김지연, 김태영, 김혜진, 박수지, 박수경 박승현, 박우준, 박예원, 백용현, 송미자, 송학용, 신우상 신현우, 양은경, 오다연, 오정석, 옥지수, 유영춘, 이다솜 이석환, 이세현, 이은정, 이정훈, 이혜미, 임채규, 임효정 장건영, 천주성, 최규동, 홍신해
	이미용 자원봉사 세아메 미용학원, 이순란 개인봉사자
	의료자원봉사 고려대학교 불자회, 국립의료원, 서대문보건소, 아산병원 단체노력봉사 국민은행,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원, 삼성장학생 서울시 자원순환과, 우리투자증권, 인창고등학교, 하나SK카드

수입		지출	
전년도 이월금	8,792,961 (예금이자 포함)	무료급식	22,707,500
		일일생활용품 구입	8,697,940
1월 ~ 12월 후원금	비지정후원금 36,150,410 지정후원금 23,180,000	목욕 미술치료 프로그램	443,810
		수요 영성프로그램	1,119,750
후원금 이자 수입금	9,030	비닐 봉투 (환경 미화 및 이용자 세탁물 관리)	2,306,500
		무료급식 자원봉사자 자조모임	3,554,000
		위생서비스 수건 구입	2,141,400
소계	68,132,401	무료진료 프로그램	554,790
		방역 프로그램	1,800,000
		체육 프로그램	1,902,250
		시설 차량 관리	2,569,000
		기관 홍보 프로그램	2,079,960
		명절행사	90,000
		시설 운영비	7,133,410
무더위쉼터 운영	30,000		
동절기 노숙인 보호	475,200		
소계		57,605,510	



네이버 해피빈의 콩으로
우리 모금함을 응원해주세요!!

모금함 주소

<http://happybean.naver.com/donation/RdonaView.nhn?rdonaNo=H000000091322>



노숙인들이 깨끗하게 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노숙인들의 삶의 질곡들 사이에 켜켜이 쌓인 찌든 때를 깨끗이 씻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거리에서 생활하시는 노숙인 분들에게 지원되는 많은 서비스의 경중을 따질 수는 없지만 그 중 위생 서비스는 노숙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의 조건을 마련해주고 거리에서 쌓인 묵은 때를 깨끗이 씻어 낼 수 있도록 저희 기관에서는 방문하여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칫솔, 치약, 수건, 비누, 면도기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 자리를 구하고 싶어 면접을 보러 가기 전 깨끗이 씻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오랫동안 씻지 못하여 시원하게 씻고 싶은 이들에게, 하루 내내 거리에서 방황하며 지친 몸을 누이기 전에 열자리에 앉아 있는 동료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 씻고 싶은 이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 주세요.

* 혹 계시던 후원 내용과 금액이 다르다면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내용은 모두 후원 영수증을 발행하였습니다.
주소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영수증 발행이 누락되신 후원자 분이 계시다면 브릿지센터 행정지원부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후원안내

단 돈 천원에 따뜻한 한 끼가 해결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일으며 줄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 이웃에게 마음과 정성이 담긴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소외된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싶으신 분은
다음과 같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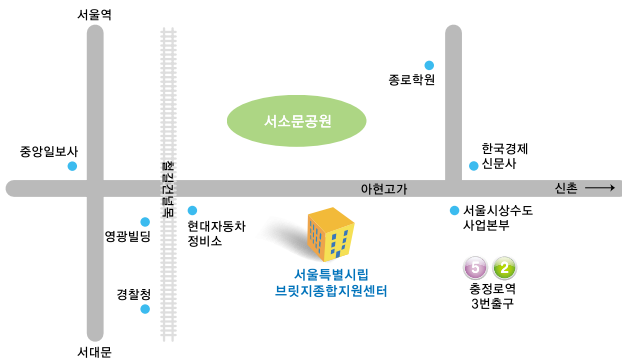
우리은행 142-301566-13-103

구세군브릿지센터

▶ 후원하신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 버스

한국경제신문사 앞 하차 : 603, 0211, 7011, 7013, 7017
경찰청 앞 하차 : 701, 704, 706, 750, 751, 752, 7021, 7023, 7024

▶ 지하철

2, 5호선 중정로역 3번 출구

서울특별시립
구세군 브릿지종합지원센터

120-030 서울시 서대문구 합동 13번지, www.dropin.or.kr
Tel 02)363-9199, 9195 Fax 02)363-9198